

[김동호의 시시각각] 사공일과 김인호가 말하고 싶은 것

[중앙일보] 입력 2019.11.20 01:18 수정 2019.11.20 16:23



김동호 논설위원

최근 어느 모임에 나갔다가 참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왕년에 경제 칼럼니스트로 필명을 날린 원로 언론인이 꺼낸 얘기다. 최근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유체이탈식 화법을 되풀이한 데 대한 비평이다. 그는 이런 현상을 ‘권력의 극지화’라고 설명했다. 북극에 가면 나침반 기능이 확

떨어진다. 나침반은 원래 북극을 가리키는 물건인데 극지에 갔으니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거다. 그저 침이 심하게 떨리면서 간간이 북쪽을 가리킬 뿐이다. 권력을 잡고 청와대만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고 세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나라 경제가 벼랑 끝에 서도 장밋빛 해석과 전망만 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셈이다.

**정권에 ‘악마의 대변자’가 실종
경륜 있는 전문가들 충언 쏟아져
문 대통령 원로들 의견 경청해야**

현 정부는 지난 1년 새 비정규직이 86만명 늘어났는데도 입맛에 맞는 통계만 들이대며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자랑한다. 주요국 가운데 나 홀로 경기침체에 빠져들어 급기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경제의 기둥인 30-40세대 일자리가 2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데도 말이다. 이래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악마의 대변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혹시라도 집단사고에 빠져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검증하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 정권에서 그런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